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2026년 미국 경제에 기대하는 것은?

[미국 금융]

- CNNBusiness: 내년 미 증시 어떻게 될 것인가?
- Bloomberg: 금과 은, 올해 첫 개장에서 상승세로 출발

[국제 무역]

- WSJ: 트럼프, 생활비 완화 의도로 가구와 부엌 용품 관세 철회
- WSJ: 한국 수출, 작년과 작년말 최고치 기록

[오일]

- Bloomberg: 오일 60 불 가까이 하락... 공급 과잉 우려가 지정학적 리스크 상쇄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YahooFinance: CES 2026, 주목할 포인트 AI
- WSJ: 원치 않는 선물 관련 반품 대행 서비스 등장
- NYT: 세계 교육 현장에 AI 도입 경쟁 가속화
- Bloomberg: 테슬라, 연간 판매 8.6% 감소... EV 1위 자리 BYD에 내줘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What to Expect from the US Economy in 2026

2026년 미국 경제에 기대하는 것은?

- 트럼프는 특히 미국 경제를 다루는 방식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밀어부친 경우가 많았다. 관세, 개별 기업과의 비즈니스 딜, 주요 기업 책임자들과의 공공연한 가까운 모습 등의 예를 보여주었다.
- 올해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, 대통령의 권한과 행사방식 (예, 관세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 확대)과 삼권 분립의 구조 변경 여부 등이 올해 주목받을 것으로도 보인다.
- 특히 올해의 미 경제 성과는 인공지능이 경제/산업과 얼마나 통합될지 (현재 매그니피ஸ트 7 기업 모두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음)이 지속될지 여부에 달려 있다.
- 만약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, 일자리가 붕괴되지 않고, 식품 가격이 치솟지 않고, AI의 성과가 투자자들 보기에 충분해 보일 경우 올해 미 경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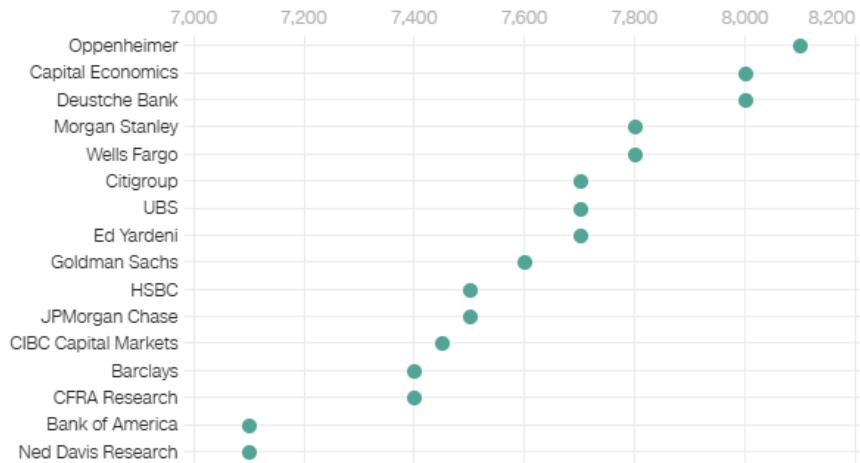
[미국 금융]

CNNBusiness: What to expect from stocks in 2026

내년 미 증시 어떻게 될 것인가?

- 지난해 까지 미 증시는 3년 연속 좋은 성장세를 보였다.
- 올해의 경우도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하고 기업 실적 보고도 미 증시의 좋은 전망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.
- Fundstrat의 경제 전략가인 Hardika Singh는 “올해 미 증시가 계속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할 뚜렷한 이유는 없다”고 말했다.
- 그러나 월가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과 관세, 그리고 연준 의장 지명 등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.
- 전문가들은 올해 2026년의 경우 긍정적인 증시에도 불구하고, 작년보다는 다소 성장세가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
- 올해 초 S&P 500 지수는 6,883이다.

Wall Street analysts' forecasts for the S&P 500's price level at year-end 2026



Note: The S&P 500 closed 2025 at 6,845.50. Ending 2026 at 7,100 would imply a 3.72% gain, while ending at 8,100 would imply a roughly 18.33% gain.

Source: CNN review of Wall Street forecasts
Graphic: John Towfighi, CNN

CNNBusiness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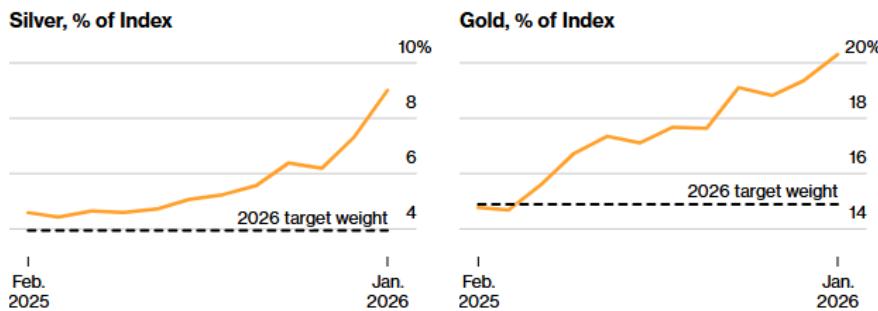
Bloomberg: Gold and Silver Advance to Open New Year as Index Selling Looms

금과 은, 올해 첫 개장에서 상승세로 출발

- 지난해 금과 은 가격이 지난 1979년 이래 최고의 성과를 낸 이후 올해 첫 개장에서 상승세를 출발했다.
- 그런데 광범위한 지수 조정이 단기적으로 가격에 압력을 주어서 50억달러의 은, 60억달러의 금 선물이 매각되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.

Silver and Gold Strain BCOM Weightings

Tracking fund will sell contracts to match new targets



[Bloomberg 기사](#)

[국제 무역]

WSJ: Trump Rolls Back Tariffs on Furniture and Kitchen Cabinets 트럼프, 생활비 완화 의도로 가구와 부엌 용품 관세 철회

- 트럼프는 향후 1년간 가구, 부엌 캐비넷, 화장대 등의 관세를 유예했다. 생활비 부담에 대한 대응 때문으로 알려졌다.
- 당초 부엌 캐비닛과 화장대에 대해 관세는 현행 25%에서 50%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며, 목재 소파 등은 30% 관세에 직면할 예정이었다.
- 미국인 가정의 가구 소비자 가격은 작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재작년 동월과 비교해 4.6% 상승했다.

[WSJ 기사](#)

WSJ: South Korea's Exports Stronger Than Expected in December; Set Annual Record in 2025

한국 수출, 작년과 작년말 최고치 기록

- 한국의 수출은 지난 12월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예상외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해에 연간 최고 수출규모를 기록했다.
- 아시아에서 4번째 수출 규모인 한국은 작년 12월 수출 규모가 그 전년도 보다 13.4% 성장6백95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. 11월 보다는 8.4% 성장했다.
- 작년 전체 수출은 3.8% 증가한 7천96억9천만불로 늘었다. 연간 수출 규모가 7천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6번째 수출 규모를 보였다고 정부는 밝혔다.

[WSJ 기사](#)

[오일]

Bloomberg: Oil Falls Near \$60 as Signs of Surplus Offset Geopolitical Risks

오일 60 불 가까이 하락... 공급 과잉 우려가 지정학적 리스크 상쇄

- 국제유가는 2026년 초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. 중동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시장에서는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가능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. 브렌트유는 약 60달러, 미국 WTI는 57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.
- 브렌트유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8% 떨어져 2020년 이후 가장 큰 연간 하락세를 보였으며, 약세 흐름은 연초에도 지속되고 있다.
- OPEC+ 일부 국가의 생산 차질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등 공급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. 그러나 미국과 비OPEC 산유국들의 생산 증가로 전체 공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. 여기에 글로벌 경기둔화로 원유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 하락 압력을 키웠다.
-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중동산 원유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면서, 시장 심리에 부담을 준 점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.
- 결론적으로, 원유 시장은 지정학적 위험보다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우려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, 유가는 60달러 안팎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YahooFinance: CES 2026: What to expect from the tech industry's biggest show of the year CES 2026, 주목할 포인트 AI

- CES(Consumer Electronics Show) 2026은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, 인공지능(AI)을 중심으로 로봇과 자동차 기술이 결합되는 흐름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.
- 올해 전시장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 로봇 팔, AI 기반 드론, 자율주행차가 라스베이거스 전역에 전시되며, 기술 상용화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업계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.
- 특히 AI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로봇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로 강조될 예정이다.
- CES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쇼케이스로 자리 잡았으며, 2026년에도 자동차 업계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.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등장해온 플라잉카(비행 자동차) 콘셉트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.
- 완성차 업체들은 AI를 차량 대시보드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극 적용해 운전자 경험을 개선하고,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전략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- 전반적으로 CES 2026은 AI가 로봇·모빌리티·소비자 기술 전반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사로, 기술 기업은 물론 제조·자동차·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전망이다.



Photographer: Bridget Bennett/Bloomberg

YahooFinance 기사

WSJ: You Can Now Hire Someone to Return All Those Unwanted Gifts

원치 않는 선물 관련 반품 대행 서비스 등장

- 휴일 이후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반품해주는 서비스를 고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.
- 바쁘거나 번거로운 반품 과정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Taskrabbit, ReturnQueen 등 플랫폼을 통해 전문 인력을 고용해, 집에서 반품 물품을 수거하고 상점이나 배송센터로 옮기며 라벨 부착과 긴 대기 줄까지 대신 처리하고 있다.
-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11~12월 예약이 급증했으며, ReturnQueen은 1~2 월에도 15~20%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. 전미소매연맹(NRF)은 올해 전체 휴일 구매의 약 17%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해, 반품 관련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서비스가 점점 주목받고 있다.
-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편리하며, 소매업계 역시 늘어나는 반품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장 기회로 평가한다.

WSJ 기사

NYT: Tech Giants Are Racing to Embed A.I. in Schools Around the

Globe

세계 교육 현장에 AI 도입 경쟁 가속화

- 2026년 현재 Microsoft, OpenAI, Anthropic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학교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. 이들 기업은 교사에게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, 수업 설계와 학습 자료 제작 등에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- 전 세계 일부 학교와 정부는 이미 AI 기반 챗봇과 학습 도구를 교실에 도입하며 수업의 개인 맞춤화와 업무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.
- 하지만 전문가들은 AI 과도한 의존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학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도입을 경고한다.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 역할로 활용되도록 정책과 훈련을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하다.
- 결과적으로, 기술 기업은 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, 정부와 학교는 AI 활용 정책과 교사 연수 확대를 통해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

고 있다. 향후 AI를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지가 교육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.

NYT 기사

Bloomberg: Tesla Surrenders EV Crown to BYD After 8.6% Sales Decline 테슬라, 연간 판매 8.6% 감소... EV 1위 자리 BYD에 내줘

- 2025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8.6% 감소한 1.64백만 대를 기록하며, 글로벌 EV 시장 1위 자리를 중국 BYD(2.26백만 대)에 내주었다.
- 4분기 테슬라 차량 판매는 약 418,2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% 줄었으며, BYD는 분기와 연간 모두 판매 성장을 이어가며 격차를 확대했다.
- 판매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쟁 심화, 미국 연방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, 일부 시장 수요 약세 등이 지목된다.
- 한편,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등 신사업을 강조하고 있지만, 실제 소비자들은 아직 제한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태다.
- 월가에서는 2026년 테슬라의 판매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